

## 사무엘상 1강(1~2장)

### <1.인사말>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상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4주동안 사무엘상을 살펴볼텐데요.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사무엘서 개요>

우리가 4주에 걸쳐 살펴볼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 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사사시대의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코로나의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에게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성취되지 못한 경건한 왕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서를 상권, 하권으로 불리하지 않고 한 권으로 보았고 이를 ‘쉐무엘’이라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생기고 발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는 사무엘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70인역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책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국의 책들이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사무엘서를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으리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죽는 장면과 이후의 오래된 이야기까지도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무엘이 직접 기록하였고 나머지 시기에는 영감 받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후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 <3. 엘가나와 하나님>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여기서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족보를 담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엘가나를 자세히 설명한 족보가 나옵니다. 세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레위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특징이구요. 셋째, 엘가나의 족보에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찬송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엘가는 레위지파였구요, 제사장이었으며, 특별히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이정도면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죠

이어서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굉장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겠죠? 목사님에게 두 아내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최초로 청은 사람은 바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청을 두었죠. 그러다가 청을 두는 것이 이스라엘에 보편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도 이어지고 이러한 영향으로 엘가나도 두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내 중 하나는 한나였고 다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2절**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고 뒤에 브닌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브닌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의 순서가 바뀐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을 두었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 3절 말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번씩 정해진 기간에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일 년에 한 번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엘가나 또한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인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에 제사장으로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레위인이었지만 애굽식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훔니는 올챙이라는 뜻이고,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엘리는 너무 나이가 들어 제사장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사의 직무만 감당했죠.

### <4.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실제적인 아내는 한나이고 브닌나는 청이었습니다. 이 중에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나요? 한나였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에게 더 많은 제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시로 많은 재물을 받았던 한나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을 받고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를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를 가진 청이 본처인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 받아 끊어졌거나 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첨이 본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하며 매일 같이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단지 아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한나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엘리제사장이 보기에 한나가 주저 앓아서 기도하는데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말하죠. 이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 15절 말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고백한 내용 중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한 기도인데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매일마다 들었던 브닌나의 조롱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거에요. 아니 다시 드릴 아이를 왜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한나는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경험을하게 되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후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암흑기에서 다시 전성기로 접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쇠락해가던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 <5.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한나는 한나의 노래이고, 다른 한나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노래는 일차적으로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안에는 브닌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를 향한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높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킬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 합니다.

#### **<6. 하나님께서 미리 왕을 염두해 두심>**

다음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는 계속 서로 교차하면서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한 번 한 후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식이 계속되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계속 멸망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여는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에 쓰여진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명기 17: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일까요? 병마가 많을 수록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유리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병마를 의지하는 왕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말을 포획하면 말 뒷발의 힘줄, 즉 아킬레스 건을 끊어놓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병마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죠. 결혼할 때에는 여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민족 차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들을 들여와 혼합종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솔로몬이 될 수 있겠죠. 주변 나라에서 우러러 볼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져 내려 그의 아들들에 의해 나라가 두 조각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천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이방여자들과 정략적 차원에서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데려와 신앙을 훼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에서 다른 신들도 함께 들어와 정체성을 훈한이 생기게 되고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셋째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금이 많다면 그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려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뭘 해보려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하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가지를 금하시고 한 가지를 꼭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18-19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남기신 명령이었습니다.

<7.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기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12절 다음 구절에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법!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법을 어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13

여기보니 관습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와있는 제사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인데 흡니와 비느하스는 먼저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세 살 갈고리에 걸려나오는 것을 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하는데 날 고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사리사욕을 채움으로 제사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죠.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제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이라는 히브리어는 인데, 영적인 간음, 즉 종교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라 일컫는 흡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지속적으로 범해왔습니다. 이에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훈계하였습니다.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니?

그런데 흉니와 비느하스는 어떤가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먹히지 않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흉니와 비느하스 이야기 사이에 이들과 비교되는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18-19절을 보면,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섰겼더라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의 두 아들은 망하는 길로 점점 내려가는 반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깐 세마포 애봇을 사무엘이 입었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적부터 어떤 옷을 입히나요? 채색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이니 다른 아들들에 비해 이뻐서 채색옷을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색옷은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은 아들에게 입하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18절에 나오는 세마포 애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숙련자들에게도 이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데 철저히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죠.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위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란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앞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역설적으로 심판이라는 개념이 담겨있습니다. 이상하죠? 돌보신다는게 왜 심판의 내용이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배가 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보시사’라는 말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방문하여 계산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계산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들려 점점 자라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가 되고 은총이 되지만, 말씀에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돌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바친 하나님에게 아들셋과 딸둘을 더 허락하십니다. 사무엘 한 명에 다섯 배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을 구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죠.

한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 깊숙히 있던 아들을 빼앗아 가신거죠. 그리고 다섯 배를 갚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2절 1절에 보면 남의 소를 가져왔을 때는 다섯 배를 주고, 양을 가져왔을 때는 네 배를 갚아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의 품에서 사무엘을 데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배를 갚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돌아보신 내용입니다. 계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떼어먹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 흉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책망하시고 멸망을 예고 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 날 한 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제사를 집행할 사람이 없었겠죠? 여기서 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제사는 이제

안되는구나.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인간의 제사로서는 더이상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성전 문을 이제 닫읍시다. 의미 없이 가져오는 예물과 회개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제는 그만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미 없이드리는 형식제사를 “내가 싫어 버린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날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한 가운데 다윗의 집을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는 청사진입니다. 충실한 제사장,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 하브리서에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견고한 집, 바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 시편 40:6-8

**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더이상 제사로서는 온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에 해결되지 않으니 매년 반복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왜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멸망과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이 대조되면서 등장할까요? 단순히 어떠한 교육과 훈계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말씀이 인간의 나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있게 자라나면서 완성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흡니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크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참된 왕이 와야한다는 것이죠.

흡니와 비느하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사장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제사로 인간이 온전해 질 수 없었습니다. 기준대로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해지지 않았고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하여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그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 참된 왕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 <8. 마무리>

오늘 강의를 마치며 우리가 기억해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도 엘리의 두 아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무엘을 준비하여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흡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흡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